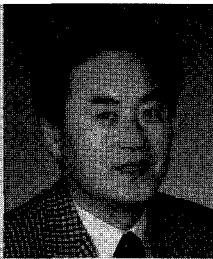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거듭 환경친화적 기계 개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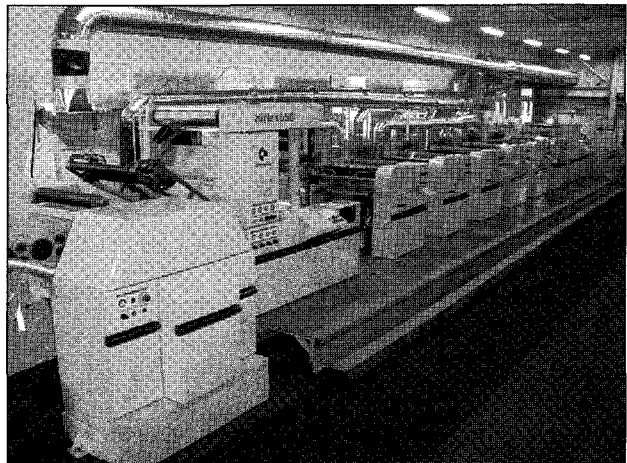
신재준
(주)그라코머시너리 대표이사

환경에 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고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포장산업 역시 강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새로운 친환경적인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비아 인쇄기 위주인 포장인쇄기계분야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세계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플렉소 인쇄기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주)그라코머시너리(대표이사 신재준)를 찾았다.

(주)그라코머시너리는 'Grand Column'의 합성어로 업계의 등극하고 큰 기둥이 되고자 하는 이상을 담고 지난 2001년 8월에 설립됐다.



▲ (주)그라코머시너리와 성안기계, AES사가 공동개발한 Hiflex 650



▲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주)그라코머시너리

경기도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그라코는 2001년 11월 해외수출을 시작으로 2002년 2월 태국현지 영업소를 개설하면서 그라비어 인쇄기 제조업체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주)그라코머시너리는 일반적인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CPP, OPP, PVC 나일론 필름과 종이 및 알루미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라비어 인쇄기를 개발·판매할 뿐만 아니라 슬리터, 라미네이터, 코팅기 등을 생산, 발전해 오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라비어 인쇄기 등을 개발하면서 경쟁력을 쌓아온 그라코는 지난 해 12월 성안기계, 호주의 AES社와 공동 개발한 인라인(In-Line Flexo) 인쇄기계 Hiflex 650을 개발, 시연회를 개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플렉소 인쇄기 제조 사업을 펼치게 됐다.

이번 Hiflex 650 개발에 선두주자 역할을 한 신재준 사장은 대학 졸업 후 17년간 성안기계에서 설계를 담당해 왔다.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기

술과 연륜을 통해 신 사장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해온 기계 개발을 위해 조심스레 독립을 결심하게 된다.

근무 당시 그라비어 인쇄기 위주였던 포장기계 업계에서 미개척 분야였던 플렉소 인쇄기 개발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신 사장은 “국내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점차 환경법이 강화되면서 플렉소 인쇄기가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플렉소는 수성잉크로 인쇄가 가능하기 때문에

Graco

친환경 제품으로 점차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라코가 성안기계, AES社와 공동 개발한 Hiflex 650은 서보 플렉소 인쇄기로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하다.

따라서 판지에서부터 플라스틱 필름, 알루미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료에 인쇄가 가능하며 인쇄폭 650mm에 분당 200m의 인쇄가 가능하다.

특히 초기 원단 손실을 최소화했을 뿐 아니라 Butt splicer, Creasing & Cutting 장치, Dry & Solventless Lami 등 다양한 시스템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특히 8도 인쇄의 경우 20분이면 작업교체가 가능하다.

이미 시연회를 통해 세계적인 기계로 평가받은 인라인 타입인 Hiflex 650은 1년 6개월에 걸쳐 설계하여 그라비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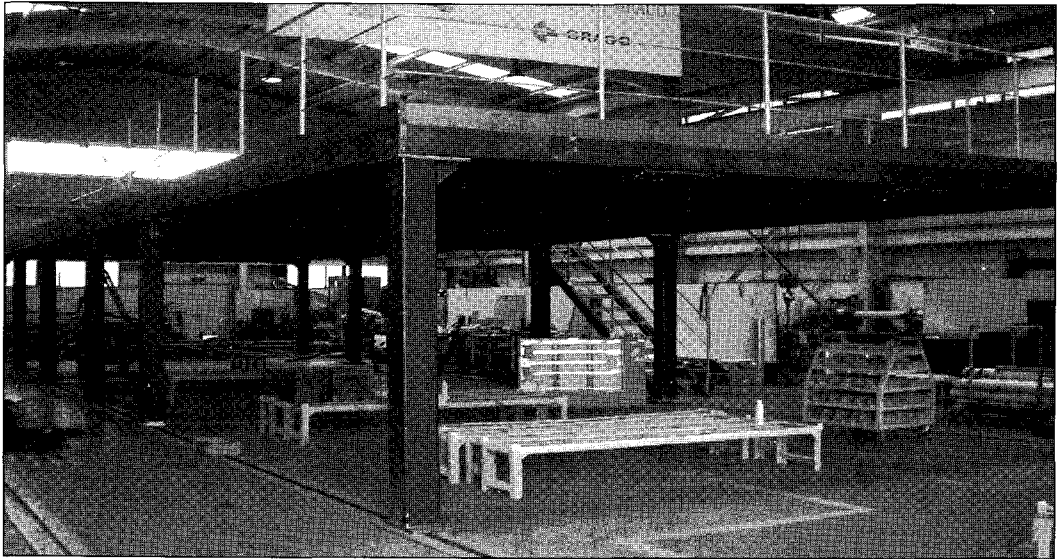
와 동등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이 기계는 1호기로 호주에 수출 할 예정이며 미국에 전 시장 부스를 마련하여 본격적으로 제품 홍보를 할 계획이다. “선진국 기계와 경쟁하며 해외 수출 활성화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통한 품질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신 사장은 “그라코가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성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에게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 생산하라고 강조하는 신 사장은 “그라코 제품이 선진국 업체 못지 않은 기계 정밀도, 내구성,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

신 사장은 그라코를 규모는 작지만 세계적으로 강한 기업이 되고자 성안기계, AES社와 상호협력을 체결함으로써 체계적인 영업망을 구축하여 고객관리를 하고 있다.



▲ 지난 해 12월에 개최한 Hiflex 650 시연회 현장



▲ (주)그라코머시너리의 공장 내부

신 사장은 “선진국 업체와 경쟁하여 치밀한 계획과 끊임 없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기 힘들 것”이라며 “항상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 수출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그라코는 침체기 동안 내성을 키워 온 일본이 세계 시장에 뛰어 들면 경쟁이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유럽 업체들이 가격 파괴를 선언한 상황에서 국산보

다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국내 기업의 실자리는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신 사장은 “결국엔 기술력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가 판가름이 난다”며 “치밀한 설계를 통한 제품개발, 품질 관리 및 고객관리를 통해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사)한국포장협회의 회원사로 가입한 (주)그라코머시너리는 협회가 좀 더 회원사간의 정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고 있다.

신 사장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과 정보 공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인 기계 개발에 더욱 주력할 것이라는 신 사장. 그는 포장업계에 종적을 남길만한 기여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항상 새로운 도전이 준비되어 있는 (주)그라코머시너리.

작지만 강한 기업,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한얼 기자